

이 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대검찰청

대변인실

전화 02 3480 2100

팩스 02 3480 2704

보도자료

2023. 11. 21.(화)

자료문의 : 마약·조직범죄부(조직범죄과)

전화번호 : 02-3480-2280

주책임자 : 조직범죄과장 이태순

제목

검찰총장, 「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」 방문

“보이스피싱 신고센터 일원화 4개월,
피해 신고·구제 절차 최일선 현장방문”

- **이원석 검찰총장은** 오늘(11.21.화) 서울 종로구 경찰청 교육장 내 위치한 『**보이스피싱(전기통신금융사기) 통합신고대응센터***』를 방문하여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신고·상담부터 피해구제 절차까지 원스톱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는 **현장을 살펴보고, 직원들을 만나 격려**하였습니다.

*[보이스피싱(전기통신금융사기) 통합신고 대응센터]

'23. 7. 정부가 보이스피싱 신고 관련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조직한 통합대응 기구로 전화는 '112', 인터넷은 '보이스피싱 지킴이'로 일원화, 경찰청·방통위·금감원·한국인터넷진흥원 등 4개 부처와 통신3사 등 민간기관이 모두 함께 참여, 합동근무

- 검찰총장의 방문은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·지원 현장을 직접 살펴보고,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된 『**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***』과의 **공조 및 협력관계를 강화**하기 위한 것입니다.

*[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]

'22. 7.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을 위해 검찰·경찰·국세청·관세청·금감원·방통위·출입국관리소 등 7개 부처 전문인력 50여 명으로 서울동부지검에 설치·운영, 범정부적 역량을 총결집하여 수사·기소·재판, 은닉재산 추적·추징, 피해자 환부, 해외도피사범 송환 등 업무전담

- 검·경을 포함 범정부적인 지속적 활동과 금융·통신사의 노력으로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 규모는 '21년 7,744억원에서 '22년 5,438억원으로 2,306억원 (약 30%) 감소, '23. 9. 현재 3,163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약 28% 정도 감소하였습니다.

- 그러나, 최근 '시딕페이키피싱', 신종앱 이용 스미싱 등 새로운 변종수법이 유포되고 있으므로 검찰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로부터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.

■ 행사 개요

- 일시·장소 : 2023. 11. 21.(화) 14:30,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
- 배 석 : (검찰) 박영빈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장, 김수민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장, 이태순 대검찰청 조직범죄과장
(경찰)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, 김봉식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, 김종민 국가수사본부 경제범죄수사과장(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센터장)
- 진행내용 : 통합신고대응센터 업무 관련 브리핑, 센터 직원들과의 간담회, 합수단과의 수사공조 및 협업 강화방안 논의
- 검찰총장은 센터의 운영시스템을 살펴보고 현장 실무 담당자들의 노고를 격려하면서, 『통합신고센터와 보이스피싱 합수단 등 범정부 대응 기관들이 더욱 긴밀히 협력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를 사전 예방·차단하고, 피해 발생 즉시 원스톱으로 신속하게 수사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』 하였습니다.

※ 행사 사진 [별첨] 참조

■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 현황

- '22. 7. 보이스피싱 합수단 출범 및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한 결과, '22년 보이스피싱 피해금은 5,438억원으로, '21년 피해금 7,744억 원에 대비하여 약 30%(2,306억원) 감소 하였습니다.

【지난 6년간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 금액】


*(단위) 억 원

연도	2018	2019	2020	2021	2022	2023.~9.
피해금액	4,040	6,398	7,000	7,744	5,438	3,163

- 이러한 감소 추세는 올해에도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어 '23년도 9월 기준 보이스피싱 피해금은 합계 3,163억원으로 전년 동기(4,404억원) 대비 약 28%(1,241억원) 감소 하였습니다.

■ 『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』 범죄 수사사례

보이스피싱 합수단은 '22. 8.부터 '23. 11. 현재까지 보이스피싱 총책 등 조직원, 대포폰·대포통장 유통 및 중계기관리 조직원, 피싱 문자 메시지 발송업자 등 총 357명을 입건·수사하여 117명을 구속기소 하였습니다.

- 최근 합수단은, '17.경부터 '21.경까지 필리핀을 거점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을 결성하여 피해자 560명으로부터 108억원을 편취한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법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하여 역대 최장기형인 징역 35년의 중형 선고를 이끌어냈습니다('23. 11.).
- 또한 합수단은 마약사범과 조직폭력배(‘동방파’ 두목, ‘칠성파’ 행동대원)가 연루된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 23명으로부터 약 9억 5,000만원을 편취한 사건의 전모를 규명하여 국내외 총책 등 총 30명을 입건하고 9명을 구속기소 하는 한편('22. 12.),
-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총 190개의 대포통장을 공급한 대포통장 유통조직을 적발하여, 총책과 주요 조직원, 대포통장 개설에 가담한 은행원, 경찰사건 무마 청탁 브로커 등 총 24명을 입건하고, 12명을 구속기소하기도 하였습니다('23. 7.).
- 그뿐 아니라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이 발신하는 인터넷 전화번호 변작('070'→'010)을 총괄한 범죄조직을 적발, 국내 중계기 사무실 관리총책 등 총 25명을 입건하여, 20명을 구속기소하였고('23. 7.),
- 이미 보이스피싱으로 처벌된 사건들의 관련 계좌를 다시 분석, '20. 10.~11. 허위 대출 문자 약 220만건을 발송하여 피해자 294명으로부터 60억원을 편취한 문자메시지 발송업자를 구속기소 하였습니다('22. 11.). 

[별첨] 행사 사진





